제2강 흩어진 대상들의 종합

(1교시)

◆대자적, 즉자적인 것과 반복
※학습목표: 대자적인 것, 즉자적인 것, 반복의 관계를 알아본다.

▲의식 이전
-근대철학과 현대철학의 중요한 차이는 현대철학이 의식 아래를 보려고 한다는 점이다. 우리 의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의식 아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퐁티의 경우 몸으로 향하고, 베르그송이나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본다. 무의식이란 몸과 순수의식의 사이다. 들뢰즈의 응시는 그 사이를 보는 것이다.

▲흄의 테재
「*흄의 이 유명한 테제에 힘입어 우리는 문제의 핵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흄에게 우리가 세계에 내재해 있다고 가정하는 존재론적인 가설들은 이 세계에 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그런 식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이는 습관이다.
-들뢰즈에게서 과거는 기억과 무의식과 연관된다. 또한 미래는 영원회귀다. 그리고 현재는 흄이 말한 습관habitude으로 얘기한다.

*참고자료

David Hume(1711.4.26~1776.8.25) 영국의 철학자

▲반복에 대한 의문
「*어째서 반복되고 있는 요소나 경우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반복은 권리상 각각의 현전화가 완전한 독립성을 띠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으니 말이다.* 」
-여기서 현전화란 나타남representation이다. 무언가 나타나는 것이 나의 현재다.
-A A A A로 요소들이 반복할 때, 어떻게 해서 반복의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www.artnstudy.com

이다. 왜냐면, 각자의 A는 완벽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순간적 정신의 성격

「*반복을 지배하는 불연속성이나 순간성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즉 어떤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이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 순간적 정신mens momentanea에 해당하는 물질의 상태이다.*」

-불연속성이나 순간성은 서로 상관이 없게 만든다는 뜻이다. 앞의 A와 뒤의 A는 서로 상관이 없다.

-주체성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냥 대상자체/물질적 대상자체는 서로 끊어져 있는 것이다. 순간성이나 불연속성은 이를 뜻한다.

▲즉자적인 것의 한계

「하지만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면 반복은 생성하는 가운데 소멸하기 때문이다. 즉자로서의 반복은 없다.」

-반복이란 생성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반복이 성립하려면 이전에 나온 것과 지금 나온 것이 비교 되어야 한다. 그래서 즉자로서의 반복은 없게 된다.

▲반복의 가능

「*반면 반복을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는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 이것이 양태변화modification변향의 본질이다. 흄이 사례로 드는 것은 경우의 반복이고, 이 반복은 AB, AB, AB, A.....라는 형태를 띤다. 각각의 경우 각각의 객관적 요소 연속 AB는 다른 것에 대해 독립적이다. 반복은 대상 안에서, 사물들의 상태 AB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반면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정신 **안에서** 어떤 차이, 새로운 어떤 것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객관적objective은 주체성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신 안에서'다. 정신에 의해서란 말은 능동적 주체, 칸트적 주체에 쓸 수 있는 말이다. 칸트의 경우 시간을 우리 주체성으로 정복한다. 그에 비해 들뢰즈의 응시는 시간과 함께 자신도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능동적 주체가 아니다.

-근대 사고가 정신/주체에 의한 사고라면, 현대 사고는 정신 안에서 벌어지는 사고다. 정신이 따로 떨어져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변해가면서 보는 것이다.

▲대자적 측면

「A가 나타났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이제 B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반복의 ***대자적*** 측면이다. 이때 대자적 측면은 반복으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어떤 근원적 주관성에 해당한다.」

-대자적이란 주체가 연관되고 주체성이 개입하는 것이다.

▲정신/대자적인 측면과 반복의 관계

「*반복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응시하는 정신 안에 차이나 변화를 끌어들이는 것은 반복이다. 하지만 반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것이 끌어들이는 바로 그 차이나 `변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오로지 정신이 반복에서 훔쳐내는 어떤 차이*

www.artnstudy.com

를 통해서만 반복에 대해 말할 수 것이 아닐까?」
-반복 때문에 우리 정신 속에 차이나 변화가 생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반복에 대해 얘기하려면 차이나 변화에 의존해야 한다.
-사실 대상자체의 반복에는 차이나 변화가 없다. 그런데 정신이 거기서 가져오는 것이다.

www.artnstudy.com

(2교시)

◆응축과 종합
※학습목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들, 대상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 살펴본다.

▲변화와 상상
「이런 변화의 본성은 어디에 있는가? 흄의 설명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독립적인 경우들은 **상상력**을 통해 용해된다. 여기서 상상력은 **수축**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인간이 어떻게 객관적 대상을 조작하고 받아들이는지를 말할 때, 흄이 끌어들이는 것이 상상imagination이다. 오늘날 imagination은 '제멋대로이다'와 '청조적이다'로 쓰인다. 이는 흄에서 시작된 생각이다.
-17세기 이전 철학자들에게 imagination은 perception과 같은 의미다. 사물을 지각해서 image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imagination이다. 오늘날의 imagination은 그 다음의 과정이다.
-흄이 볼 때, 인간의 상상력이 작동하지 않고 경험만 있다면 모든 것은 단지 경험의 파편들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imagination을 작동시킴으로써 보편자, 인과, 법칙들이 만든다.
-수축contraction은 파편화된 것들을 모아서 수축시킨다는 의미다. 칸트에서 이것은 종합이다.

▲순간들의 응축과 종합
「*상상력은 감광판처럼 새로운 경우가 나타날 때 이전의 경우를 계속 보존한다. 상상력을 통해 경우, 요소, 진동, 동질적 순간들이 수축된다. 그리고 일정한 무게를 지닌 어떤 내적이고 질적인 인상 안으로 용해된다. A가 나타날 때 우리는 B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이 B는 수축된 모든 AB들의 질적인 인상에 상응하는 어떤 힘을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기대와 생각은 기억에 의한 것도, 하물며 지성의 작용에 의한 것도 아니다. 수축은 어떤 반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수축은 어떤 시간의 종합을 형성한다.*」
-수축 과정을 통해서 순간적 파편에 불과한 인상이 아니라, 내적interne이고 질적qualitative인 인상이 된다.
-응축한다는 것은 이질적인 것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또한 단지 파편들이 모인 것(externe)이 아니라 우리 몸처럼 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기억은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기억을 말한다. 즉 반성적이다. 반면 수축은 전반성적이다.

▲시간의 와해
「*순간들의 계속은 시간을 형성한다기보다 오히려 와해한다. 이 계속은 오로지 시간의 탄생한 지점만을, 그러나 항상 실패한 탄생 지점만을 표시한다.*」
-시간이 끊어져 있다면 와해된다. 시간의 탄생은 현재가 계기(繼起)한다는 말이다. 마치 북을 반복적으로 칠 때의 소리처럼 이어지고, 태어나자마자 사라진다.

www.artnstudy.com

▲시간과 종합

「*시간은 오로지 어떤 근원적 종합안에서만 구성된다. 순간들의 반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종합은 독립적이면서 계속 이어지는 순간들을 서로의 안으로 수축한다. 이런 종합을 통해 체험적 현재, 살아있는 현재가 구성된다.*」

-'서로의 안으로'는 내적이란 말과 같다. 그리고 살아있다, 체험적이라는 것은 종합되면서 이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의 범위

「그리고 시간은 이런 현재 안에서 펼쳐진다. 과거와 미래도 모두 이런 현재에 속한다.」

-엄밀히 말해서 현재는 지나갈 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들뢰즈는 어디까지가 현재냐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들뢰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즉자적인 것들이 파편으로 흩어지지 않고 주체에 의해 응축/수축되어 이어지면서 살아있는 현재가 된다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도 따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와 함께 존재한다.

www.artnstudy.com